

# 漢初 文人의 不遇意識에 대한 소고

- 不遇主題 賦 작품을 중심으로

오만중·이경아\*

## <目 次>

1. 賈誼 「弔屈原賦」
2. 董仲舒의 「士不遇賦」
3. 司馬遷 「悲士不遇賦」
4. 東方朔의 「答客難」
5. 결어

漢代 賦 작품은 문장의 특성에 따라 騷體賦와 散體賦로 나눌 수도 있고, 小賦 (혹은 抒情小賦)와 大賦로 분리하기도 한다. 騷體賦는 초사 작품의 형식을 본받았다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대부분 편폭이 짧고 내용이 서정적이기 때문에 小賦 (혹은 抒情小賦)로도 불린다. 散體賦는 산문형식으로 편폭이 길기 때문에 大賦라고도 불린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不遇 주제의 작품들은 모두 騷體賦 혹은 抒情小賦에 속하며, 漢初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賈誼의 「弔屈原賦」, 董仲舒의 「士不遇賦」, 司馬遷의 「悲士不遇賦」, 東方朔의 「答客難」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漢初의 독특한 정치 상황에서 문인들이 不遇한 자신의 처지를 賦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漢代 賦 문학 작품의 창작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고리이며, 동시에 당시의 시대적 변화와 문학작품과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논문의 서술 방식은 네 작품의 창작 배경과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논술하려고 한다.

\* 전남대 중문과 고전문학 교수, 전남대 중문과 석사대학원생.

## 1. 賈誼「弔屈原賦」

「弔屈原賦」의 창작 동기는 賈誼의 생평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가의는 漢初 文帝 때가 주요 정치활동 시기였으며, 33세의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sup>1)</sup> 그는 文帝 원년에(기원전 179년, 22세) 河南郡守였던 吳公의 천거로 博士가 되고, 한 해 사이에 太中大夫의 벼슬에까지 오른다. 그러나 列侯들을 봉지로 보내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상소 때문에 周勃、灌嬰 등 대신들의 참소를 받게 되고, 文帝도 가의를 점차 멀리하게 된다. 결국 24세 때에 長沙王 太傅로 강등되어 낮고 습지가 많은 南國 長沙로 부임하게 된다. 부임 도중 湘水를 건너며 굴원을 기리는 「弔屈原賦」를 지었다 한다.<sup>2)</sup> 吳公의 천거로 文帝의 조정에 들어가, 1년 사이에 博士에서 太中大夫에 이르렀다가 곧 대신들의 험담으로 長沙王 太傅로 폄적되었던 가의는 굴원의 유적지를 지나면서 자신의 처지와 닮은 굴원의 형상에 무한한 同病相憐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弔屈原賦」에서 賈誼는 굴원이 처했던 사회구조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그의 처지를 동정한다. 굴원이 흑백이 전도된 법도가 없는 세상에서 끝내 자신의 몸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어지러운 세상의 몇 가지 대비적인 상황을 나열하고 있다. 즉 “상서롭지 못한 때를 만나 난새와 봉황은 엎드려 기고 부엉이와 올빼미는 하늘을 날며, 어리석은 자는 존경받고 드러나며 참소하고 아첨한 자는 뜻을 얻는다. 성현은 거슬러 끌려다니고 方正한 사람은 거꾸로 서게 된다. 세상에서 말하길, 卞隨와 伯夷를 혼탁한 인물이라 하고, 盜跖과 莊驕를 청렴한 인물이라고 하며, 莫耶를 무디다 하고 남으로 만든 칼을 날카롭다 하네. 슬퍼서 말을 할 수 없으니 굴원의 무고함이어.”<sup>3)</sup> 굴원의 불행이 불합리한 현실 때문이었음을 직

1) 賈誼는 高祖7年(기원전 200年)에 태어나 文帝12年(기원전 168年)까지 살았다. 王淵明, 徐超, 『賈誼集校注·附錄·賈誼年譜』,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6, 452-464쪽 참조.

2) 가의는 그 후 3년 뒤 27세쯤에 여전히 장사왕태부로 있으면서 「鵬鳥賦」를 지었다. 28세 때에 문제가 가의를 불러들여 귀신의 근본에 대해 물었고, 다시 梁懷王太傅로 계수하였다. 30세쯤에 「旱雲賦」를 썼다. 32세 때 梁懷王이 말에서 떨어져 죽자, 이를 슬퍼하여 가의도 다음 해에 죽게 된다. 가의 생애에 관한 구체적 史實은 『史記·屈原賈生列傳』, 北京, 中華書局, 1982, 2491-2492쪽과 『賈誼集校注·附錄·賈誼年譜』 참조.

3) “逢時不祥。鸞鳳伏竄兮，鴟鴞翱翔。蘭茸尊顯兮，讒諛得志。賢聖逆戾兮，方正倒植。謂隨夷溷

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충분한 동정을 표한다.

그러나 가의는 자기의 생각을 진언하는 “訊<sup>4)</sup>曰” 이하의 글에서 굴원의 행위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봉황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심연의 신비스런 용은 깊이 잠겨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데,……굴원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머뭇거리다 그런 변고를 당한 것이니 본인의 잘못인 것이다. 천하를 돌아다니며 이상에 맞는 군주를 만날 것이지 초나라만 기슭에 품고 있었는가? 봉황은 천 길의 창공을 날다가 덕이 빛나는 곳을 보고 내려앉으나 조그만 위협의 징조가 보이면 날개를 쳐서 멀리 날아가 버린다. 조그만 웅덩이가 어찌 배를 삼킬만한 큰 물고기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강호를 횡단하는 고래라도 조그만 땅강아지나 개미에게 통제될 수 있다.”<sup>5)</sup> 가의는 굴원과 같이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불우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굴원처럼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초나라만 고집하다가 머뭇거리며 변고를 당한 것은 잘못이며, 자기가 처한 곳이 옳지 않으면 떠나야 하니, 그 이유는 나라가 어지럽거나 통치자가 자신을 수용할 그릇이 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굴원에 대한 가의의 이런 비판적 시각은 그의 문학에 여전히 내재한 전국시기 책사들의 자유분방한 사상적 영향 때문일 것이다. 劉躍進은 가의의 문학적 풍모에 대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가의가 살았던 시기는 秦漢 교체기였고, 예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禮’는 刑名과 權術의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의의 글을 읽어보면, 전국시기 책사들의 글처럼 世情에 통달하여, 붓 끝에 바람이 일 정도로 통렬하다. 군주의 관심을 얻기 위해 종종 격렬하고 절실한 언어를 쓰기도 하고, 은덕과 위엄을 함께 드러내고 매우 강한 목적의식을 갖추고 있어 사람을 감동하게 하며 놀라서 다시 돌아보게 하는 예

兮, 謂跼蹐廉. 莫耶爲鈍兮, 鉛刀爲銛. 于嗟默默, 生之亡故兮.”

4) “訊은 고하다, 진술하여 알리다의 뜻이다. 辭賦 작품의 끝에 전편의 요지를 총결하는 起首詞이다. 『한서』에는 ‘諄’로 되어 있다. (訊: 告, 陳訴, 爲辭賦篇末總結全篇要旨的起首詞. 『漢書』作諄.) 費振剛, 仇仲謙, 劉南平校注, 『全漢賦校注』,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2005, 6쪽 참조.

5) 鳳縹緲其高逝兮, 夫固自引而遠去. 襲九淵之神龍兮, 沕淵潛以自珍.……般紛紛其離此郵兮, 亦夫子之故也. 歷九州而相其君兮, 何必懷此都也. 鳳凰翔于千仞兮, 覽德輝而下之. 見細德之險微兮, 遙增擊而去之. 彼尋常之汙瀆兮, 豈容吞舟之魚. 橫江湖之鱣鯨兮, 固將制於螻蛄.

술효과를 거둔다.”<sup>6)</sup> 劉躍進은 가의가 통일왕조의 기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漢 초기에 살았기 때문에, 가의의 글에는 전국시기 책사들의 글쓰기 영향이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상적 군주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고 초나라만 고집하여 난을 당한 굴원에 대해 가의는 비판적으로 묘사한 것이며, 이는 책사들의 유세가 성행했던 전국시기 사상 영향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sup>7)</sup> 굴원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불우한 자신을 투영하는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 작품은 굴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매우 객관화시켜 묘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 왕조는 통일 이후, 文景之治의 休養生息 시기를 거쳐 武帝 때에 이르러서 점차 제왕의 통치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런 체제하에서 漢代의 유생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관직의 진퇴 여부의 운명이 제왕의 말 한 마디에 달려 있었으므로, 제왕의 권력에 절대 복종해야 했다. 따라서 이들은 전국시기 游說家들이 누렸던 군주를 선택하며 자신의 이상을 펼친 자유를 더 이상 향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생들의 이런 불만은 무제 때의 ‘不遇’ 주제의 賦가 생겨나게 된 연유일 것이다. 그 대표적 작품은 董仲舒의 「士不遇賦」, 司馬遷의 「悲士不遇賦」 그리고 東方朔의 「答客難」이다.

## 2. 董仲舒의 「士不遇賦」

「士不遇賦」의 창작 연대는 董仲舒의 생평에 대한 고찰을 통해 대략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董仲舒의 생몰연대는 명확히 밝힐 수 없으나,<sup>8)</sup> 대략 景帝와

6) 劉躍進, 『秦漢文學論叢』, 南京, 鳳凰出版社, 2008, 31쪽 참조.

7) 蔡金平은 가의는 굴원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통해 통일왕조 시기에 살았던 자신이 굴원의 처지보다 더욱 힘들고 어려웠다는 애통함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한다.(因此, 賈誼他們責備屈原實際上是在表示自己的處境要比屈原更爲艱難, 藉以表達自己的哀痛。) 「漢魏六朝抒情小賦題材研究」, 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년, 7쪽 참조.

8) “동중서의 생몰년월은 고증할 수 없다. 경제 이전에 태어나서 무제 때까지 살다가 죽었음이 분명하다.(董子生卒年月無可考. 要生於景帝前, 至武帝朝, 以老壽終, 無疑.)” 蘇興, 『春秋繁露義證·附錄一·董子年表』, 北京, 中華書局, 1992, 491쪽 참조.

武帝 때 활동했음은 분명하다. 사상적으로 그는 『春秋繁露』를 통해 “천인감응(天人感應)”과 “군권신수(君權神授)”와 같은 개념을 주장함으로써 漢 왕조 통치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사상가로서의 위치를 자리매김하였다. 「士不遇賦」는 유일하게 전해지는 그의 賦 작품으로 쓰인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동중서가 主父偃 그리고 公孫弘과의 두 차례 정치적 좌절<sup>9)</sup>을 겪은 후<sup>10)</sup>의 저작으로 본다. 목숨을 잃을 뻔한 主父偃과의 충돌, 심리적 불만이 정치적 갈등으로 심화하여 膠西王의 살얼음판 같은 조정으로 편적되었던 경험은 “왕을 보좌할 재능을(王佐之才)”<sup>11)</sup> 가졌던 동중서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희망과 진취적 정신을 꺾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런 좌절의 마음은 “서두르며 평안하지 못한 삶 단지 욕됨만 더해지네. 애써 울타리를 부딪치나 괜히 뿔만 부러지네.(遑遑匪寧, 秬增辱矣. 努力觸藩, 徒摧角矣.)”와 같은 문구에 잘 드러난다. 그리고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개탄은 “몸을 바르게 하고 때를 기다리다 장차 관속으로 들어가리(正身俟時, 將就木矣.)”, “집을 나서지 않으면 거의 과실이 없을 것이네(不出戶庭, 庶無過矣.)”와 같은 소극적이면서도 도가적 개념이 담긴 표현으로 묘사된다.

- 9) 主父偃과의 사건은 遼東의 高廟와 高園偏殿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빌미로 동중서가 음양 오행에 근거하여 자연재해와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결합하여 對策을 올린 일에서 비롯된다. 즉 “그러므로 하늘의 재앙은 폐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신 중 나라 안에 있는 측근이나 귀족으로 바르지 않은 자를 잔인하게 주살하는 것은 내가 고원의 편전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따름이다.(故天災若語陛下: ‘……視近臣在國中處旁仄及貴而不正者, 忍而誅之, 如吾燔高園殿乃可’云爾.)” (班固,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2, 1331-1332쪽 참조.) 무제의 近臣이었던 主父偃은 이에 원한을 품고, 고제의 태묘를 모독한 죄를 동중서에게 씌워 殺身의 화를 당할 뻔했다. 公孫弘과의 사건은 공손홍이 동중서의 『春秋』의 학문과 도덕적 인품에 질투의 한을 품고, 그를 당시 교만하고 무자비했던 무제의 형인 膠西王의 재상으로 편적시킨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동중서는 귀향한 후, 학문과 저술에 힘쓴다. 동중서의 두 차례 정치적 좌절에 관한 비교적 자세한 논술은 林小雲『董仲舒和他的「士不遇賦」』, 『福建師範大學學報』, 2005年第4期, 53-54쪽 참조.
- 10) 『春秋繁露義證·附錄一·董子年表』에 의하면, 武帝 元狩 2년(기원전 121년)에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다시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蘇興, 『春秋繁露義證·附錄一·董子年表』, 484쪽 참조.
- 11) “찬하여 말한다. 유향이 칭하길, ‘동중서는 왕을 보좌할 재능을 가졌으니, 비록 이윤이나 여상이라도 더 나올 수 없고, 관중이나 안영과 같은 패자의 보좌들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贊曰, 劉向稱董仲舒有王佐之才, 雖伊呂亡以加, 筮晏之屬, 伯者之佐, 殆不及也.)” 班固, 『漢書·董仲舒傳』, 2526쪽 참조.

불우한 현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은 과거 역사 속의 이상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드러난다. 동중서가 갈망하는 역사 속의 이상 세계는 堯、舜、禹 시기를 가리키는 삼대(三代)이다. 그래서 자신이 隆盛한 시기인 삼대에 태어나지 못하고 夏、商、周 三季의 말기와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났음을 개탄한다. “인생이 三代之 盛世를 만나지 못하고 삼계의 말기를 만났네.(生不丁三代之盛隆兮, 而丁三季之末俗.)” 그리고 삼계 말기의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 나가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나열하나 매번 매이고 구속되며 막힌다. 즉 “교묘한 말과 속임수로 통달을 기약하나 올바른 선비 정직하여 스스로 속박하고(以辯詐而期通兮, 貞士耿介而自束)”, “매일 자신을 세 번 살피나 진퇴유곡의 신중함을 품고 있는 듯하며(雖日三省於吾身, 絲懷進退之惟谷)”, “물러나 마음을 닦으며 속으로 스스로를 책하나 또한 따를 바를 알지 못하고(退洗心而內訟兮, 亦未知其所從也)”, “상고시기의 맑고 탁함을 살피나 청렴한 선비들은 외롭게 돌아갈 곳이 없었네(觀上古之清濁兮, 廉士亦煢煢而靡歸)”. 동중서는 삼계 말기와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 산다고 개탄하지만, 그런 시기에도 탕왕이 천하를 선양하였으나 거절했다는 卞隨와 務光, 그리고 孤竹國의 왕위를 동생에게 양보하고, 周 무왕이 紂를 정벌하자 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으로 들어가 죽은 伯夷와 叔齊 같은 현자들과 타인의 모함에 의해 죽거나 추방당하여 자진한 伍子胥와 屈原과 같은 인물을 청렴한 선비의 전형으로 들고 있다.<sup>12)</sup> 유생으로서 동중서는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투영할 대상으로, 본인이 이상 시기로 여기는 堯、舜、禹 삼대의 현자들을<sup>13)</sup> 예로 들기보다는 夏商교체시기의 卞隨와 務光, 商周교체시기의 伯夷와 叔齊 그리고 춘추전국시기의 伍子胥와 屈原을 예로 든다. 물론 탕의 선양을 거절한 卞隨와 務光是 도가적 형상의 이상 인물로, 의롭지 못한 주 왕조에서 녹을 먹을 수 없다하여 수양산에 은거한

12) “卞隨와 務光是 深淵으로 자취를 감췄고 伯夷와 叔齊 산으로 올라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네. 저 성현들도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세상의 모든 미혹된 사람들이야. 伍子胥와 굴원 같은 사람은 본래 다시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네. 저들과 같지 않은 나는 장차 멀리 은둔하여 끝내 그들을 사모하리.(殷湯有卞隨與務光兮, 周武有伯夷與叔齊. 卞隨務光遁迹於深淵兮, 伯夷叔齊登山而采薇. 使彼聖賢其絲周遠兮, 矧舉世而同迷. 若伍員與屈原兮, 固亦無所復顧. 亦不能同彼數子兮, 將遠游而終慕.)”

13) 삼대시기에 왕의 선양을 거절하거나 비판한 현인으로 요에게는 許由, 순에게는 善卷, 우에게는 伯成子高와 같은 인물이 있다.

伯夷와 叔齊는 유가적 형상의 이상 인물로 묘사되며 모두 은거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 참여하다 모함을 당한 伍子胥와 屈原은 죽음으로 현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형상의 인물들이다. 主父偃의 참소와 公孫弘의 질투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한 풍파를 겪은 동중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다양한 인물들을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불우한 상황을 이상화시키고 있다. 그가 바라는 행위양식은 “소박한 본래의 일에 자신을 되돌리는 것만 같지 못하리니 세속을 따라 돌아가지 말 것이다. 비록 성정을 어겨 온갖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또한 마음을 바로하고 오직 선으로 돌아감만 못하리.(孰若返身於素業兮, 莫隨世而輸轉。雖矯情而獲百利兮, 復不如正心而歸一善.)”라고 말한다. 세속을 따라 전전하지 않으며 마음을 바르게 하여 선에 귀의하고, “몸을 바르게 하여 때를 기다리며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正身俟時, 將就木矣.)”라고 말한다. 董仲舒가 느끼는 不遇는 三季의 말세를 만나 자신의 청렴한 성정을 어겨가며 온갖 이익을 얻기 위해 세속을 따라 전전하다가 부딪히게 된 정치적 좌절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3. 司馬遷「悲士不遇賦」

司馬遷의 생몰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증명할 수 없으나, 태어난 시기는 漢 景帝 中元 5年(기원전 145년)으로 보고, 죽은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며 무제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sup>14)</sup> 사마천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은 李陵을 변호하다가 궁형을 당하게 된 일일 것이다.<sup>15)</sup> 이릉은 흉노족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투항하게 되며, 조정에서는 적에 투항한 패장에게 당연히 법에 따라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릉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던 사마천은 투항하

14) 程金造, 「司馬遷生年卒年之商榷」에 따르면, 사마천의 태어난 시기는 武帝 建元 6년(기원전 135년)과 景帝 中元 5年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 죽은 시기는 무제 이전과 이후의 설로 나뉘나, 무제 이후의 설이 정확하다고 논한다. 黃沛榮, 『史記論文選集』, 臺北, 長安出版社印行, 1982, 127-179쪽 참조.

15) 사마천이 궁형을 당한 해는 武帝 天漢 3年(기원전 98년)이다. 黃沛榮, 『史記論文選集』, 118쪽 참조.

게 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변호하다 끝내 궁형이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당한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대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남은 것은 아버지 사마담의 유언<sup>16)</sup>을 완수하려는 사명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의 「悲士不遇賦」는 이 사건에 대한 문학적 승화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王進明은 「悲士不遇賦」 창작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요인으로 동중서의 「士不遇賦」를 들고 있다. 동중서에게서 公羊派의 『춘추』학을 배운 사마천은 스승의 「士不遇賦」의 영향으로 창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sup>17)</sup>

사마천은 자신의 인생 遭遇가 동중서의 「士不遇」와 비교할 때 더욱 처참하고 비통하다고 여겼을 것이며, 이것이 제목에 ‘悲’자를 추가한 이유일 것이다. ‘슬프도다!(悲夫!)’로 시작하는 「悲士不遇賦」는 “선비가 태어남이 때가 아니니, 되돌아보아 그림자 외롭게 마주하니 부끄럽네.(士生之不辰, 愧顧影而獨存.)”로 말문을 연다. 이상적인 세상을 만나지 못했던 현명한 군주를 만나지 못했던 간에 자신의 불우로 인해 느끼는 고독감을 외로운 그림자에 잘 투영하고 있다. 이릉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조정 대신들이 아무도 그의 편에서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대속할 자금이 필요했을 때 친구나 親近들이 아무도 구원을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일들이<sup>18)</sup> 그의 불우의 슬픔을 더했을 것이다. 이어서 자신은 극기복례에 힘쓰고 열심히 행동으로 옳거나, 뜻을 펼 수 없음을 개탄한다.(將遂屈而不伸.) 뜻을 펼 수 없는 이유로 당시 사회의 불합리한 면들을 드러낸다. 재능이 세상과 어긋나고, 죽게 되도 힘써 일하고, 행동을 하나 드러나지 않으며, 능력만 있지 펴지 못하고, 窮達에 쉽게 미혹하며 美惡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실 세계 때문에 뜻을 펴지 못하고 불우하게 된 것이다.<sup>19)</sup>

16) “내가 죽으면 너는 반드시 태사가 되어라. 태사가 되면 내가 저술하고자 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余死, 汝必爲太史. 爲太史, 無忘吾所欲論著矣.)” 『史記·太史公自序』, 北京, 中華書局, 1982, 3295쪽 참조.

17) 王進明, 「西漢“士不遇”賦透析-以賈誼、董仲舒、司馬遷爲研究對象」, 연변대학 석사학위논문, 2006년, 25쪽 참조.

18) “가난하여 재산은 자기를 대속할 수 없고, 교유하는 자들도 구해주지 않았으며, 좌우의 친근들도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家貧, 財賂不足以自贖, 交游莫救, 左右親近不壹言.)” 『報任安書』 참조.

19) “진실로 재능이 뛰어난나 세상과 어긋나고, 장차 죽게 되었으나 오래도록 힘써 일하네. 비

불합리한 현실 때문에 당하게 된 불우한 처지는 사실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사마천은 간과한다. “人間의 이치 뻔하니 서로 다투는구나. 살기만 바라고 죽기를 싫어함은 재능의 비천함을 나타낸 것이네. 부귀만을 좋아하고 빈천함을 천시하는 것은 명철함이 어지럽혀서이네. 환하게 사리에 통달하여 가슴이 훤히 열려야 하리. 어둑어둑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해독이 생겨서이네. (人理顯然, 相傾奪兮. 好生惡死, 才之鄙也. 好貴夷賤, 哲之亂也. 昭昭洞達, 胸中豁也. 昏昏罔覺, 內生毒也.)” 서로 다투며 살아가게 되어있는 인간의 속성은 비천한 재능과 명철하지 못함, 막힌 가슴과 마음속의 해독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궁형을 당한 자신의 처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런 부조리한 조우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天道가 쇠미하여 인간이 거기서 떨어진 탓으로 돌린다. (天道微哉, 吁嗟闔兮.) 그러나 사마천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입신에 대한 사명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 현명한 자는 이미 헤아리고, 나의 말 현명한 자는 이미 좋다고 할 것이네. 죽을 때까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을 옛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겼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을 누가 그르다 할 것인가. (我之心矣, 哲已能付; 我之言矣, 哲已能選. 沒世無聞, 古人唯耻. 朝聞夕死, 孰云其否!)”라고 말한다. 이름이 드러난 후에는 ‘석사가의(夕死可矣)’인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말미에서는 도가의 순환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스스로 그러한 이치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거스르고 순조로운 것은 순환하니 몰락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네. 당연한 이치라도 근거할 수 없고 지혜라 할 지라도 의지할 수 없다네. 복 앞에 나서지 말고 화근의 시작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리. 스스로 그러함에 맡겨 끝내는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리. (逆順還周, 乍沒乍起. 理不可據, 智不可恃. 無造福先, 無觸禍始. 委之自然, 終歸一矣!)” 사마천은 자신이 불우하게 된 원인을 하나하나 추궁해 나간다. 먼저 올바른 때를 만나지 못해 자신의 능력과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 것이 불합리한 현실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 또한 본인이 명철하지 못해서라고 문제의 원

록 행위는 있으나 드러나지 않고, 단지 능력만 있지 펴지 못하네. 어찌 궁색하고 통달함에 쉽게 미혹되는가? 진실로 아름답고 악함을 분별하기 어렵네. (諒才趨而世戾, 將逮死而長勤. 雖有行而不彰, 徒有能而不陳. 何窮達之易惑, 信美惡之難分.)”

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그래도 석연치 않아 다시 天道가 쇠미하여 인간에게서 떨어진 객관적 뜻으로 돌린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삶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본인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다시 이런 모든 객관적 현실과 자신의 조건 또한 스스로 그러한 이치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직시한다. 그는 아마 이런 객관적 현실과 자신의 조건에 대한 냉철한 직시를 통해 치욕스런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사기』를 저술하여 부친의 유언을 완수할 수 있었으며, 그럼으로써 현세의 불우를 후세의 조우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 4. 東方朔의 「答客難」

東方朔은 漢武帝가 처음 즉위하고 천하의 '方正、賢良、文學材力'의 선비들을 등용하려 하였을 때, 상서를 올려 스스로를 천거하였다. 무제는 그의 재능을 뛰어난다고 여겨 '待詔公車'를 명하였다. 그러나 봉록이 적고 오랫동안 황제를 만나 볼 수가 없자, 난쟁이들을 속여 황제를 알현할 기회를 얻은 동방삭은 "자기의 말이 쓸 만하다면 그 예를 특이하게 여겨주시고, 쓸 만하지 않다면 파면하여 장안의 쌀을 축내지 않게 하십시오."<sup>20)</sup> 라고 하였다. 무제는 파안대소하며 그를 金馬門待詔로 삼고 가까이 하였다. 후에 다시 常侍郎이 되어 총애를 받았다.<sup>21)</sup> 그러나 종종 자신의 재능을 믿고 관직에 있는 公卿들에게 자만을 보이며 희롱하고 굽하지 않았다.<sup>22)</sup> 당시 무제는 인재를 불러들여 능력에 따라 요소요소에 잘 등용하기를 바랐

20) 동방삭은 말을 키우는 궁중의 난쟁이들을 속여, 너희들은 관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라의 쓰임에도 이익이 없으니 황제께서 모두 죽이려하시니, 황제께서 지나가시면 죄를 청하라고 하였다. 난쟁이들이 울면서 죄를 청하자, 황제는 그 연유를 묻고 동방삭이 꾸민 일임을 알고 동방삭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동방삭은 난쟁이들은 키가 3척 정도인데도 9척이 넘는 저와 봉급이 같으니 저들은 배가 불러 죽은 지경이나 저는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대답하며, 자기의 말을 쓸 수 없다면 파면시켜 곡식을 축내지 않게 하여달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무제는 오히려 파안대소하고 동방삭을 金馬門待詔로 삼고 가까이 하였다. 班固, 『漢書·東方朔傳』, 2843쪽 참조.

21) "上以朔爲常侍郎, 遂得愛幸." 班固, 『漢書·東方朔傳』, 2845쪽 참조.

22) "自公卿在位, 朔皆敖弄, 無所爲屈." 班固, 『漢書·東方朔傳』, 2860쪽 참조.

으며, 公孫弘이나 司馬遷 등은 方外로 功績을 나가거나 公卿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방삭, 枚臯, 郭舍人 등은 모두 황제의 좌우에 있었으나 희롱거리일 따름이었다. 그러자 “동방삭은 상소를 올려 農戰強國의 계책을 진술하며 자신만 큰 관직을 얻지 못했음을 호소하고 써줄 것을 바랬으나,…… 끝내 쓰이지 않았다. 동방삭은 객을 설정하여 자기를 힐난하는 방식의 글을 써서 지위가 낮음을 이용하여 자위하였다.”<sup>23)</sup> 동방삭이 「答客難」을 쓰게 된 연유에 대한 반고의 기록은 이 작품이 쓰인 시기에 대한 추론의 단서를 제공한다. 公孫弘이나 司馬遷이 중용되었던 시기에, 동방삭은 그들을 부러워하여 農戰強國의 계책을 진술하여 자신의 진로를 모색한 때로,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기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答客難」이 쓰인 시기는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기 이전인 天漢 2년(기원전 99년) 이전으로 볼 수 있다.<sup>24)</sup>

「答客難」은 객이 동방삭에게 질문하는 문답식의 설정을 통해 작가의 불우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객이 문기를 전국시기의 소진과 장의는 모두 대국의 군주를 만나 경상의 지위를 얻었고 후세에 영향을 끼쳤는데, 대부 벼슬을 하고 있는 당신은 선왕의 통치술을 닦고 성인의 의로움을 흠모하며 『시』, 『서』, 제자백가의 말을 독송하면서 스스로의 재능이 천하에 짝이 없다고 여기니, 실로 박학다식하고 능변의 지혜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군주를 섬긴 것이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관직이 아직 시랑(侍郎)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니, 생각건대 아마도 친척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

동방삭은 세 가지 측면에서 대답을 한다. 먼저 소진과 장의가 살았던 전국시기와 자신이 처한 한 왕조는 서로 다른 세상임을 말한다. 전국시기는 제후간의 각축 속에서 군주가 훌륭한 선비를 얻으면 흥하고 그렇지 못하면 망하는 시기이기 때문

23) “朔上書陳農戰強國之計，因自訟獨不得大官，欲求試用。……終不見用。朔因著論，設客難已，用卑位以自慰諭。”班固，『漢書·東方朔傳』，2863-2864쪽 참조.

24) 「答客難」이 쓰인 시기에 대해서는 龍文玲, 魯洪生 『漢武帝對東方朔「答客難」影響考論』(『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8卷第2期, 2008年)에서 기존의 4가지 서로 다른 시기의 주장에 대해 상세히 논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상한선은 太初元年(기원전 104년) 2월로 보고, 하한선은 天漢2년(기원전 99년)으로 본다. 36-38쪽 참조.

에 선비들의 학설이 쉽게 받아들여졌으나, 한 왕조 시기는 황제의 선택에 의해 선비의 처지가 좌우되는 시기이며 또한 수많은 선비들이 생활조차 곤란하여 삶의 길을 잃고 있는 상황이니 소진 장의가 살았던 시기와 자신이 처한 세상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은 수신에 힘쓰면서 주위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자신의 뜻을 바꾸지 말아야 함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동방삭은 훌륭한 처사는 무리를 이루지 않고 홀로 거하니, 예를 들면 許由 接輿 范蠡 子胥 등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나 의로운 일을 서로 도왔으나 짝과 무리가 적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樂毅 李斯 酈食其 등은 훌륭한 언변으로 뜻을 이룬 것은 그 때를 만났기 때문이다. 당신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관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고,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채려는 것과 같으며, 벼 앞으로 종을 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치 쥐가 개를 습격하고 돼지가 호랑이를 무는 것과 같아, 스스로 곤란을 당할 것이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동방삭이 느낀 불우의 원인은 앞의 세 사람과 다르다. 흑백이 전도된 사회구조 속에서 불행한 생을 마감한 굴원을 닮은 賈誼의 경우와 다르고, 정치적 충돌로부터 경험하게 된 좌절에서 온 동중서의 경우와도 다르며 그리고 때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한 사마천의 경우와도 다른, 오히려 盛世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이다.<sup>25)</sup> 박학한 지식을 갖고 벼슬을 하면서 군주를 섬기고도 공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는 객의 설문에, 동방삭은 전국시기 유세가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대답한다. 제후들이 각축하던 전국시기에 소진 장의 같은 인물들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나, 통일된 한 왕조에서는 오히려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힘든 정치 상황임을 강조한다. 신하의 운명이 是非의 올바른 판단이나 賢 不肖에 대한 분명한 변별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통치자의 好惡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세상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압박감이 드러난다. 오직 수신하면서 許由 接輿 范蠡

25) 楊震은 「從董仲舒、司馬遷、東方朔的賦看漢武帝時代的士不遇現象」에서 동방삭의 불우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자신이 때를 만나지 못했다고 여기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태평성세가 불우하게 만들었다고 여겼다.” 『魯行經院學報』, 2003年 第6期, 142쪽 참조.

子胥 등과 같은 옛 현인들처럼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불우한 경우의 처세 방식을 말한다.

## 5. 결어

지금까지 漢代 초기의 賦 작품 중 不遇 주제와 관련 된 대표작이라 할 만한 賈誼의 「弔屈原賦」, 董仲舒의 「士不遇賦」, 司馬遷의 「悲士不遇賦」, 東方朔의 「答客難」을 중심으로 그 창작 배경과 작품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네 명의 작가들은 비록 漢 初라는 시대 배경은 유사하지만 각기 독특한 정치인생을 경험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표현된 자신들의 불우한 의식 또한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의는 굴원이라는 인물의 묘사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다. 어린 나이에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文帝의 신임을 얻었으나 대신들의 참소로 폄적생활을 하게 된 처지가 굴원과 흡사하여 굴원의 유적지를 지나다 「조굴원부」를 지었다. 작품에서 굴원의 처지와 행위에 대해 애도와 공정을 나타내지만, 한편으론 불행한 처지에서 굴원처럼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漢代에 이어지는 굴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불씨를 남긴다.<sup>26)</sup>

董仲舒는 대신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치적 좌절을 경험하고 과거에 불우한 삶을 살았던 卞隨、務光、伯夷、叔齊、伍子胥、屈原 등과 같이 은거하거나 도덕적 책임을 다하다 죽은 인물들을 예로 들어 자위한다. 獨尊儒術을 주장했던 그의 정치사상처럼 賦에서도 유가의 도덕적 풍모를 드러낸 것이다. 司馬遷은 때를 만나지 못함을 절절히 탄식하며, 극기복례하고 뜻을 행하여 드러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유가의 인생철학을 역설하는 한편 또한 객관적 현실과 자신의 조건 또한 스스로 그러한 이치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도가적 인생철학을 드러낸다. 자신이 명철하지 못해서든 천도가 쇠미해서든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 현실의

26) 漢代의 굴원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에 대한 논의는 졸문 「遇不遇 概念의 哲學的 論議에서 文學的 形象化로 - 戰國時期에서 漢代의 屈原 形象을 중심으로」(『중국인문과학』, 제45집, 2010年08月, 133-148쪽) 참조.

문제는 스스로 그러한 이치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직시한다. 도가적 정서에 기탁하여 현실의 고통을 완화시킴으로써 부친의 유언을 완수할 내적 힘을 얻었다 할 수 있다.

東方朔은 문답 방식을 통해 불우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 신하가 군주를 섬기면서 공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는 객의 설문에, 그 이유를 통치자의 권력에 의해 신하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여서, 능력 있는 신하들이 전국시기와는 달리 자신의 재능을 펴기 힘든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런 경우의 처세방식은 오직 수신하면서 許由 接與 范蠡 子胥 등과 같은 옛 현인들처럼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이런 문답 형식을 통한 작가의 내부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은 후대의 많은 문인들에 의해 답습되었다.<sup>27)</sup> 漢初 문인들이 불우한 처지에서 느낀 내면세계를 抒情小賦의 형식으로 표현해냄으로써, 외부세계를 주로 묘사하는 大賦와 함께 漢代 賦文學 창작의 두 갈래를 형성하였다.

#### 〈參考文獻〉

-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82.  
 費振剛, 仇仲謙, 劉南平校注, 『全漢賦校注』,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2005.  
 劉躍進, 『秦漢文學論叢』, 南京, 鳳凰出版社, 2008.  
 蘇輿, 『春秋繁露義證』, 北京, 中華書局, 1992.  
 黃沛榮, 『史記論文選集』, 臺北, 長安出版社印行, 1982.  
 王進明, 「西漢“士不遇”賦透析—以賈誼、董仲舒、司馬遷爲研究對象」, 연변대학 석사학위논문, 2006년.  
 蔡金平, 「漢魏六朝抒情小賦題材研究」, 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년.  
 王洲明, 徐超 『賈誼集校注·附錄·賈誼年譜』,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6.  
 林小雲, 「董仲舒和他的“士不遇賦”」, 福建師範大學學報, 2005年第4期.

27)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揚雄의 「解嘲」, 班固의 「答賓戲」, 崔駰의 「達旨」, 張衡의 「應問」, 崔寔의 「客議」, 蔡邕의 「釋誨」 등 다수이다.

- 龍文玲, 魯洪生, 「漢武帝對東方朔『答客難』影響考論」, 『河南大學學報』, 社會科學版, 第18卷第2期, 2008年.
- 楊霞, 「從董仲舒、司馬遷、東方朔的賦看漢武帝時代的『士不遇』現象」, 『魯行經院學報』, 第6期, 2003年.
- 오만중, 「遇不遇 概念의 哲學的 論議에서 文學的 形象化로 - 戰國時期에서 漢代의 屈原 形象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제45집, 2010年08月.

#### 〈中文提要〉

此论文主要分析的对象是以不遇为主题的汉初赋作品, 即贾谊的「吊屈原赋」, 董仲舒的「士不遇赋」, 司马迁的「悲士不遇赋」和东方朔的「答客难」. 在汉初独特的政治情况下, 文人们将自己所面临的不遇处境如何表现在赋作品里面是为本文分析的核心内容. 通过考察汉初的这些赋作品, 我们可以把握汉代赋作品的创作倾向, 同时可以了解到文学作品与时代变化之间的影响关系. 贾谊借以描写屈原投射自己, 在作品里对屈原的处境表示哀悼和肯定, 但对屈原自投汨罗的行为表示不满. 这种观点引起了后世对屈原的批判意识. 董仲舒则有了与大臣们的冲突而导致的政治上挫折的经验, 把自己寄托于过去不遇而隐居或尽道德责任而死的圣贤, 以此展现自己儒家的道德风貌. 司马迁虽说克己复礼和惧志行而无闻的儒家精神, 但终归于委之自然的道家思想. 东方朔则以问答方式的文体阐述自己所面临的不遇处境. 由他开创的问答方式的赋体, 后来许多赋作家作了不少模拟作品.

關鍵詞: 不遇, 士不遇賦, 賈誼, 董仲舒, 司馬遷, 東方朔, 答客難

이 논문은 2015년 1월 7일에 접수되어 2015년 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